

## 창조경제시대의 ICT와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

우성희

한국교통대학교 의료정보공학과

### 목 차

- I. 서론
- II. 창조경제와 국내 외 추진전략 및 사례
- III. 창조경제시대의 ICT 산업정책과 역할
- IV. 창조경제시대의 여성 역할과 경제활동 참여현황
- V. 창조경제시대의 여성 일자리 창출방안
- VI. 결론

### I. 서론

최근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국정 목표로 정하고 창조 경제를 통하여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용,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Howkins(2001)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되었으며 호킨스는 창의성으로 부터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사업 활동들을 창조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Florida(2002)는 호킨스 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그 범주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창조경제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혁신 창출, 창의적 인재 유인, 개방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창조 자본 구축역량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창조경제’는 또한 한국의 기존 전통적인 산업 추격 모방형 경제에서 미래의 선도 창의형 경제로 발전됨을 의미한다. 즉, 과학기술과 ICT, 문화, 인문학 등이 융합하여 산업간 경계 부분에서 창조경제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창조경제 벤치마킹에서 증명되고 있다.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은 창조형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 차세대 여성 과학기술인이 될 학·석·박사과정의 여학생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전문적인 여성과학기술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정책도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경제 활동중 단 여성들은 육아와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과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직업역량이 최고조에 이르는 30대 초·중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저하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창조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갈 여성 과학기술인의 창조적 교육과 육성, 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창조경제의 개념과 정부 추진전략, 창조경제 시대의 ICT 산업정책과 여성의 역할과 경제활동 참여 현황, 그리고 창조경제시대의 여성 일자리 창출방안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 II. 창조경제와 국내외추진전략 및 사례

#### 2.1. 창조경제의 의미와 부상배경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는 1998년 영국 미디어 스포츠부에 의해서 국가 차원에서 본격화 되었다. DCMC는 “개인의 창조적 스킬, 재능등에 기반 한 산업 내 지적 재산권의 창출과 이용을 통해 부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산업”으로 정의하고 창조 산업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단어의 의미는 UNDP[1]에서 제시한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성이 있는 창조적 자산에 기반한 진화론적 개념으로 창조적 자산을 생산하는 모든 경제 활동’이라는 뜻으로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외의 다른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의 창조경제 의미를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창조경제의 의미

연구자 및 연구기관	의 미
노무라 종합연구소 (1990)	정보화 사회를 잇는 패러다임으로 창조화 라는 제4의 물결이 올 것을 강조, 창조경제 를 처음으로 제시[2]
Business week(2005)	창조경제 시대의 도래를 언급, 앞으로 경제 패 러다임은 식(knowledge)에서 창조성(creativity) 으로 중심이 돌아가는 창조경제 시대 도래를 언급[3]
John Howkins	창조적 인간, 창조적 산업, 창조적 도시를 기 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체제로 창조적 행위와 경제적 가치를 결합한 창조적 생산물의 거래 [4](개인의 창조성 등 창조적 아이디어가 소 유되고 거래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
Richard Florida	창조경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창조를 기 반으로 한 창조계급의 부상과 이를 토대로 하여 일, 삶, 공동체의 변화를 제시[5]
Creative Britain :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창조사업은 ‘개인의 창의성(기술, 재능)을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활용하여 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정의

창조 경제에 대한 이들의 정의는 주로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창조적 산업이 도시 경제를 선도해 갈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

창조 경제의 등장 배경은 다음 표 2와 같이 인간심리, 과학기술 혁신, 국내경제 현실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인간 심리 측면에서 보면 소득 증대에 따르는 인간의 자아 실현 욕구 충족을 위한 창조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창조경제 발상의 기원이 되고, 과학기술 혁신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 급속 발전,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 확산 등 대외 경제 여건의 급변에서 창조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국내 경제 현실 측면에서는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급속 하락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창조경제가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제시[6]되었다.

표 2. 창조경제의 등장 배경

등장 배경	내 용
인간 심리 측면	- 경제 성장과 개인 소득 증대와 더불어 개인의 생리적 욕구 충족도가 높아지면서 인간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과 소속감에 관한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설명(매슬로) -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추구함에 따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창조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형성된다고 주장(호킨스)
과학 기술 혁신 측면	- ICT 혁신 가속과 기술·산업의 융복합화 확산 - 제3차 제조업 혁명 전개
국내 경제 현실 측면	- 저성장 기조 지속 - 고용없는 성장 심화 - 성장 잠재력 급락

창조경제의 핵심요소[7]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지식 생태계, 지식의 창출은 물론, 이미 축적된 지식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인적 자본, 생태계 혁신, 기업이 정신의 고양 및 창업이 용이한 환경, 사회적 자본의 축적으로 5가지 요건이 갖추어진 경제가 바로 창조경제이며 창조경제의 각 요소들은 서로 간에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한 가지라도 미비하면 창조경제의 구축이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 각 제반요소들을 강화 하고 촉진시키며 각 요소들 간의 선순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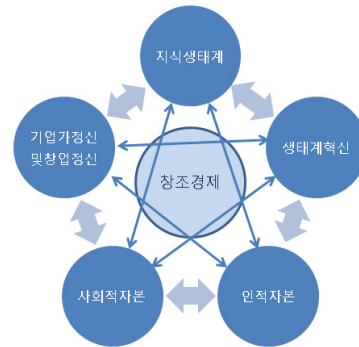


그림 1. 창조경제의 구성요소

2.2. 창조경제의 정부추진전략 및 해외추진사례

새 정부가 설정한 창조 경제 의미는 ‘박근혜 정부 국정 비전 및 국정 목표’에 의하면, 창조산업 육성만이 아니고, 국내 경제 전반의 창의력 제고를 통한 선진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광의의 창조경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첫 번째 목표로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협의의 특정 산업 육성에 국한된 것이기보다는 국내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광의의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는 크게 ‘성장 전략’, ‘산업 정책’, ‘시장 질서’ 등 세 가지의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성장 전략은 자본 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사람 중심의 선도형 창조경제로 전환하여 성장 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 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의미하며 산업 정책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업 융합적 경제운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창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의 확산과 동력 강화를 의미한다. 시장 질서는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의미한다.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 전략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2와 표 3과 같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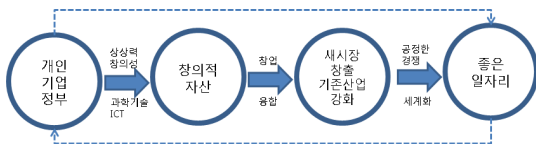


그림 2. 우리나라 창조경제 정책의 개요

표 3.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추진전략

항목	내용
창조경제의 개념	-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 새로운 시장을 창출, 기존 산업을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배경과 목적	- 추격형 경제성장 전략의 한계에 대응, 경제 전반을 고도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	- 창조경제 실현계획(2013) - 창업생태계 조성, 벤처, 중소기업의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역량 강화, 창조경제문화 조성

주요정책 수단	내용
	- 엔젤투자 활성화, 클라우드펀딩 제도화, 미래창조펀드 조성, M&A세금감면 - 대학교 융합과정 확대, 기술창업캠프, 미래도전형 모험연구사업, 한국형 grant 제도 - 국가 특허 청사진, 특허투자펀드 조성 - 지역클러스터 구축 - 해외진출 유망 스타트업 지원, 해외지원센터 - 과학기술과 ICT 접목 및 SW인터넷 기반으로 신산업 창출, 미래유망 신산업 발굴육성

창조경제는 나라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창조성과 문화적 가치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불황속에서도 창조 상품과 서비스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창조 경제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하여 창조성과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창조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창조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온 영국, 핀란드, 독일, 일본, 싱가포르의 사례[8]를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해외 주요국의 창조경제 추진 전략

국가	주요국의 추진전략
영국	- Cool Britannia, Creative Britain (1997-2010) - Creative Britain(2008): 교육, 재능을 일자리로 전환, R&D지원, 창조사업지원, 지적권 발전 및 보호, 창조 클러스터 지원, 영국을 창조허브로 육성 - 보수당 정권(2010-)의 기술적 측면 강조 웹, 디자인, 기술이 결합된 예술, 그리고 수학과 과학 등 창조산업의 바탕이 되는 교육을 강조하고, 2013년 1월부터 대입시험에 컴퓨터 공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핀란드	- Development Programme for Business Growth and Internatioanlization of Vreative Industries 2007-2013 : 창조산업 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이 혼재된 형태, 16개 프로젝트 - Cultural Exports Promotion Programme 2007-2011: 창조경제 클러스터 설립 및 창조산업의 기반 구축과 문화 상품 수출 촉진, 창조경제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독일	- 독일 연방 문화 창조산업 이니셔티브: 문화창조산업의 기반구축, 관련 중소기업 지원, 글로벌화 추진등
일본	- 2010년 6월 신성장 동력(2010): 콘텐츠, 디자인, 패션, 음식, 전문문화등의 창조산업을 국가 전략분야로 인식하기 시작, 창조산업을 아시아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 일본 브랜드력이나 외교력 강화와 연계시킨다는 전략제시 - Cool Japan 전략(2010): 일본의 브랜드 파워 강화, 산업분야별, 해외 시장별 진출 전략수립, 2020년 9조~11조엔의 수출시장 획득이 목표
싱가포르	- 역동적인 국제도시: 2012년까지 창조산업의 GDP 기여도를 3%에서 6%로 육성, 아시아의 창조허브의 목표수립

주요국의 창조 경제 추진 전략 가운데 교육 개선, 창업 개선 및 창조적 중소기업지원, R&D 등 혁신역량강화, 지재권 인식 제고 및 관련 정책 개선, 글로벌화 등이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 되고 있다. 또한 관련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신시장 개척으로 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화가 주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 III. 창조경제 시대의 ICT 산업정책과 역할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 즉,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 전반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목적이다. 과학기술과 ICT를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줄 것이며 나라를 이끌어갈 원동력으로 다기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의 과학기술터전이 현재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제 국민 3만달러 시대에 진입을 목표로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를 갈망하는 한국은 다시 한번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제도약을 할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할 창조 경제 역량 가운데 ICT 자본과 혁신자본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다른 역량자본의 역할을 끌어올리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적 자본과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이 창조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ICT 자본과 혁신 자본을 중심으로 타 자본과의 융합 촉진으로 창조경제역량강화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으로 IT생산 세계 4위, IT수출 5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IT강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에 힘입어 1,566 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는 1970년의 500만 달러보다 약 3만 배 이상 성장한 수준이며, 2012년 3분기 기준 전체 경제성장의 약 25.1%를 IT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볼 때 기존의 경쟁력 있는 품목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시스템반도체 등 융합제품들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저성장 기

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에 IT기술을 접목한 창조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IT가 가진 본연의 특징 즉, 정보(지능화), 통신(이동성), 내재화(부가가치 창출)는 다른 산업과 결합 되어 창의와 혁신을 구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 이에, IT를 활용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는 불과 50여년 만에 IT강국이 되었다. 지금 우리는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점에 와 있다. 이러한 전환점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IT산업이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와 미래 메가트렌드 변화에 빠르고 쉽게 적응하여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IT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창조경제시대의 ICT는 핵심산업이며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9][14].

첫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요소의 역할을 한다. 즉 지식기반의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에 있어 환경구축과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다. 즉, ICT는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디지털 교과서나 콘텐츠를 통해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사교육비 절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시간 단축효과등의 공교육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ICT가 창조산업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시장 창출의 역할을 한다. 스마트 혁명으로 다양한 장치와 사람, 장치와 장치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연결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많은 양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불리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셋째, ICT가 타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의 역할을 한다. 스마트 혁명은 ICT 산업의 경계를 넘어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이끌어 내고 있다. IT와 비IT의 경계가 급격하게 소멸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와 같이 IT가 독자 성장(IT Alone)에서 산업과의 융합(IT Convergence), 일상화(IT Everywhere) 되는 현상을 소위 “IT 에이스(ACE)”라고도 부를 수 있다. IT는 ACE 산업으로서 사람이 주체가 되고 기술개발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행복기술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IV. 창조경제시대의 여성 역할과 고용현황

##### 4.1. 창조경제의 여성의 역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국제여성과학기술인대회’에 참석해 "여성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여는 키워드"라고 강조하며 "경력단절이 없도록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성의 섬세한 감성과 기술은 다양한 산업과 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창조경제의 견인차로서 국민행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듯 여성의 사회참여가 지금의 창조경제를 위한 필수요건이 되는 이유를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는 고급 인력의 활용이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력이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에게 비싼 투자를 해서 고등교육을 시켜놓고 사회활동에 참여시키지 못한다면 미래 성장동력을 상실시키는 것과 같다.

두 번째는 젠더 혁신(Gendered Innovation)이다. 선진국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며 젠더 혁신이란 남성 위주로 이루어져온 정치 경제 사회 경제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배제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여성이라는 젠더 개념이 반영됨으로써 얻어지는 새로운 창의적인 가치와 혁신을 사회와 인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 활발한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더 높다는 점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모성보호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환경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창조경제시대의 새로운 돌파구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는 한국의 기존 전통적 산업에서 미래의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경제로 발전됨을 의미한다. 즉, 과학기술과 ICT, 문화, 인문학 등이 융합하여 산업간 경계 부분에서 창조경제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창조경제 벤치마킹에서 증명되고 있다.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은 창조형 선진국의 경우 상당히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아직 차세대 여성 과학기술인이 될 학·석·박사과정의 여학생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전문적인 여성과학

기술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도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조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갈 여성 과학기술인의 창조적 교육과 지원 및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4.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문제점

2011년 OECD에서 발표한 ‘교육, 고용, 기업가 정신 양성 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50년대 50달러 미만에서 2011년 2만 7,000달러를 초과하고, 이 기간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31.9%에서 80.5%로 급증하였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0년 49.9%에서 2010년 54.5%로 20년 전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고학력 여성 집단에서 더 낮게 나타났고 2009년 OECD평균 25~64세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2.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1.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남성 대졸자 91.8%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평균인 92.1%와 비슷한 반면 여성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10][11].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요인은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문제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직업역량이 최대치를 갖는 30대 초·중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을 전후로 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011년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등 이공계열을 전공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62.8%로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9.4%에 비해 상당히 높은편이나 30~34세는 58.6%, 35~39세는 56.1%로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문제는 학문의 변화 속도가 다른 학문에 비해 빠른 과학 기술분야의 특성상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 되게 되면 타 분야에 비해 재진입이 어려워, 개인적 차원의 능력 사장뿐 아니라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 면에서도 커다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08년도 조사에 의하면 대졸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1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 4.3. ICT 산업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현황

창조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ICT 산업에서 여성 인력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지난해 정보통신 정책 연구실의 'ICT 부문 여성 인력 현황 및 시사점' 발표에서 발표되었다. 국내 ICT 부문 여성 인력 고용 규모 및 현황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J) 종사자수 기준 2004년 이후 남성 종사자수는 10만 1,000명 증가한데 반해 여성인력은 7,000명 감소했다. 2004년에는 J산업 여성 종사자 비율이 30.9%를 차지했지만 2012년에는 5.1% 감소한 25.7%로 줄었다. ICT 전문가 직종에서도 여성 인력 비중은 낮았다. OECD 26개국 평균 여성인력 비중이 18%에 비해 우리나라는 16.2% 수준으로 2009년 대비 감소했다[10]. 여성 ICT 인력은 평균 연령 및 근속년수도 매우 낮았다. J산업의 경우 남성이 37.3세에 비해 여성은 31.7세로 나타났고 평균 근속년수도 남성 7.1년에 비해 4.5년으로 짧았다. 경력에 따른 여성 인력 비중 변화에서도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의 경우 16.2%로 다른 전문직에 대비 낮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경력 초기 단계부터 ICT 산업 진출이 저조했다. 경력에 진행될수록 여성 인력 비중이 줄었고 10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에는 10.1% 수준으로 하락했다. 임금 수준에 있어서도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 수준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ICT 산업 중 SW 산업의 경우 열악한 환경과 잦은 야근 등의 문제에 대해 상응하는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기업 내 ICT 여성 동료가 없다는 우려 및 남성적 문화 등에 대한 요인이 여성의 진입을 저해한다.

#### V. 창조경제시대의 여성 일자리 창출방안

이공계 출신 여성 대통령, 여성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 대표 국회의원들의 활동으로 '여성 과학자 시대'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서 여성은 소중한 인적자원이다.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 여성의 경제 활동율은 당연히 높여야 하며 특히 인력수급 어려움이 있는 이공계의 경우는 남성과 동일한 고급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고 일할 능력도 갖춘 여성

과학기술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남성의 보조자가 아닌 경제활동의 주체로 활동해야 한다는 자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인력 수급 측면에서 2012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자연계열 학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여성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다. 기계 중화학 등 남성의 장점이 부각되던 산업 구조에서 정보통신, 생명공학, 융합기술 등 여성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 중심이 이동되고 있으며, 여성의 새로운 시각은 다양한 문제 인식 및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 지식 서비스 산업에 유리하다 할수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세계적 트렌드, 기술의 융복합화등 여성이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12][13].

우리나라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면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멘토링등의 육성 사업,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개발,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통해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다.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이 앞으로도 꾸준히 시행되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할것이다. 그리고 여성들 각자는 창조경제 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역할자로서 경제 발전에 꼭 필요로 한다는 주인의식과 가져야 할 것이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제점 해결방안과 지원사항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5.1. 일과 가정의 양립성 문제 해결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2,000시간대를 넘는 최장시간 근로국가로서 근로시간 당 노동생산성(2009년 OECD 30개국 중 28위)이 최하위 수준으로 이러한 사회적 여건은 일과 가정을 양립을 어렵게 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자신의 생애 전반에 걸쳐 경력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이나 보육시설 확충 등 단편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문화를 바꾸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 5.2.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구축

여성의 고학력화 및 사회참여 욕구 증대와 남성들의 맞벌이 선호경향 등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될 것이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 양성 평등 및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의 체계적인 구축이 시급하다. 기업에서의 가족친화제도 도입은 근로와 가정의 조화로운 병행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 근로자들의 근무 집중도도 높여 노동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5.3. 사회 인프라 구축과 법적제도 지원

남녀 고용차별은 채용을 비롯한 승진, 보수, 발령 등의 인사시스템에서 발생한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사고틀이 강한 조직에서 여성승진에 대한 배타적 성향이 드러나기도 한다. 경제는 이것을 유리천장이라고 한다. 유리천장은 사회적, 조직 또는 직장내에서 느껴지는 성별, 인종, 학연, 지연, 혈연 등 불합리한 모든 인사시스템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차별적 구인광고, 여성을 배제한 남성중심의 기업문화, 남녀간 급여격차, 육아 및 가사로 인한 불이익 등의 비공식적인 인사 시스템 등이 유리천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성별 고용평등지표 추이를 보면 2010년 기준 남녀 임금격차는 38.8로 집계된다. 이 같은 한국식 유리 천장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관과 틀에 박힌 여성 편견에 있다. 더불어 여성들의 직장생활 고정관념 즉, 힘쓰는 일, 야근이나 특근등을 여자라는 이유로 회피하거나 조직보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형태들로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 한국식 유리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각과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기업도 보수적인 관념을 깨고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에 집중해야 하며 정부 역시 노동 시장의 관행적인 남녀 고용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육과 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행과 의식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5.4. 경력단절의 문제 해결

전경련에선 가장 큰 여성 경력단절 이유는 결혼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경우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결과이지만 50대와 60대의 경력단절은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과거 직장 문화에서 발생한 경우이다. 요즘 20~30대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결혼보다는 육아문제가 경력단절이 주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여가부가 발표한 2013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30대 이상 비취업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정책은 ‘양질의 시간 선택제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여가부에서는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연한 근무제, 휴직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 일 센터, 가족친화인증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점을 찾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5.5. 여성 기업 클러스터 구성 및 지원

창조경제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영국은 10여 년의 연구 끝에 “Creative Britain” 보고서를 발표한 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소규모, 업무분절 변화, 프리랜서 증가, 글로벌화의 심화,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연계 등의 특징을 보이는 창조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성 모두에 대한 과감한 정책과 투자를 통해 창조계급 양성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여성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산학연 네트워킹, 출연연의 열린 혁신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추진해야 할 것 이며 특히, 디자인, 예능, 제조업, ICT, 문화 관광 등 융합적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 분야에 특히,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과 기인 기업 창조 클러스터 등을 구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 VI. 결 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시대는 미래의 선도 창의형 경제로 발전됨을 의미하며 여기에 여성의 역할은 중요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는 필수 조건이 되었다. 또한 과학기술과 ICT, 문화, 인문학 등이 융합하여 산업간 경계 부분에서 창조경제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창조경제에서

증명되고 있다.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은 창조형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문적인 여성과학기술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정책도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경제 활동 중이던 여성들은 육아와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 참여 인프라와 법적 제도 미흡, 가정과 일의 양립성 문제등 많은 문제점들이 여성 경제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창조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갈 여성의 창조적 교육과 지원에 정부와 기업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성 지원 정책은 일부 특수한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할 권리를 찾는 것과 같다. 또한 여성은 창조경제 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역할자로서 경제 발전에 꼭 필요로 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국제연합개발계획), 'Creative Economy'  
 [ 2 ] 野村總合研究所 總合研究本部, 創造の戰略:創造化時代のマネジメント・ノウハウ, 野村總合研究所 總合研究本部編, 1990.

[ 3 ] Get Creative : How to build innovative companies, Businessweek, 2005. 8.1.  
 [ 4 ] John Howkins, Creative Economy :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Penguin Books, 2001. www.withings.com/en/bloodpressuremonitor  
 [ 5 ] Richard Florida(2003) " The Rais of the Creative Class: Revisited"  
 [ 6 ] '창조경제의 의미와 새정부의 실현 전략', 경제주평, 2013,03.22.  
 [ 7 ] 최계영, '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 추진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4.3.  
 [ 8 ] 오세경, '주요국의 창조경제 추진사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2013.7, 제13호-15호.  
 [ 9 ] 민경식, '창조경제 시대의 ICT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 2013.8., 정보통신설비학술대회논문집  
 [ 10 ] '여성과학기술인재활동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12.6.  
 [ 11 ] '여성과학기술인 활용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모색 토론회', 2011.6.  
 [ 12 ]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기술',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보고서, 2013.  
 [ 13 ]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 KISTEP, 2013.  
 [ 14 ] IT 산업정책 방향, 정보통신기술 및 정책, 2013.



우성희(Sunghee Woo)

1999년: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1995년~현재: 한국교통대학교 의료정보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컴퓨터네트워크, 정보보안, 프로토콜 공학